

우리들의 교만과 어리석음

본문 신 32 : 15 - 33절

David HONG

1. 전체배경

오늘 본문은 32장의 모세의 노래의 중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32장의 모세의 노래를 기승전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노래의 승, 전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1. 기 : 반석이신 하나님과 우매 무지한 이스라엘 (1 - 6절)
2. 승 : 구원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과 이스라엘의 배신 (7 - 18)
3. 전 :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19 - 35)
4. 결 :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과 대적에 대한 심판 계획 (36 - 43)

2. 관찰

1) 교만은 모든 패망의 선봉이요 (15 - 18)

15절의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애칭으로 의미는 바르다라는 뜻이다. 히브리 발음은 ‘반석’과 비슷하다. 그런데 여기서 비꼬는 시니컬한 비유로 쓰인 것이다. 즉 반석이신 하나님과 비슷한 여수론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 ❶살찌고, ❷비대하고, ❸윤택해졌다. 하지만 그 부와 평안 이 그들은 ‘교만’하게 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역으로 ❶ 걷어차고, ❷ 버리며, ❸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 여기서 첫 번째 동사인 걷어차다는 고집 센 짐승이 주인에게 뒷발질 하는 것으로, 이는 잘 먹이고 길러준 주인을 오히려 걷어차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17절은 우상에 대해 4가지 용어를 사용한다. ❶ 귀신, ❷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❸ 새롭게 나타난 신, ❹ 너희 조상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신, 이다. 이 용어에서 강조한 것은 이 우상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적이며, 일하신 하나님과 달리, 이스라엘을 위해 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들을 섬겼다는 것에 충격 이다.

18절은 결론에 해당하는 구절이다. 즉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마치 ‘이들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한 부모님을 버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 표현을 모세는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버린 행위’라고 표현한 것이다. 즉, 이스라엘의 이러한 우상숭배는 부모를 잇는 행위와 같고, 그들을 낳아준 부모를 버리는 행위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질투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 19 - 25절

19절의 시작은 ‘보시고 미워하셨다’라고 시작한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앞절 18절과 같이 그들의 자녀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그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다. 20절에 그 분노의 첫 단계로, 자신의 임재를 숨기는 것으로 시작한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 그들 앞서 행하심, 그들을 위해 싸우심’으로 상징되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방관’하시겠다는 것이다.

21절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분노를 폭발하신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여, 나의 ‘질투’를 일으켰으니, 나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질투’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이다.

22 - 23절은 하나님의 이 질투를 2가지로 비유했다.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화살’이다. 이 불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온 우주를 다 불사르고 남을만 하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땅’과 ‘소산’을 태운다. 여기서 땅과 소산은 그들의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 또한 23절은 이스라엘이 그 동안 죄를 쌓아왔다. 그것은 지금까지 ‘재앙’을 쌓아온 것과 동일하며, 그 재앙은 이제 ‘화살’이 되어 그들에게 날아올 것인데, 마지막 화살까지 다 쏠 것을 천명한다.

이어 24 - 25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탄 것과 재앙을 담은 화살을 맞은 이스라엘의 참상을 소개한다.

❶ 주림(기근, 가난)이다. ❷ 더위와 질병이다. ❸ 짐승들의 이빨 - 공포감이다. ❹ 기는 것 - 혐오감이다. 거기에 25절 칼은 - 전쟁을, 놀람은 - 그로 인한 공포감을 이야기 한다. 한마디로 완전한 파멸을 의미한다.

3) 자녀들에게는 ‘징계’는 있으나 ‘저주’는 없다. : 26 - 27절

26 - 27절은 ‘독백’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즉 원래 의도는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을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원수들의 오해’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이 진노와 질투 때문이 아닌, 자신들의 ‘잘남’으로 인하였다고 오해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며,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질투’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4) 이방민족의 우매함(?) & 착각 : 28 - 31

이 본문은 대표적으로 오역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번역이 그들을 - 이스라엘로 번역했으나 (새번역, 쉬운성경), 현대어 성경과 NIV는 이방인으로 번역했고, 이는 앞의 본문과의 전체적 맥락으로 볼 때, 이방민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모략과 지식’이 없는 백성이라는 것이 천명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원수들’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앞절에서 그들이 오해한다 - 즉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 -는 것에 하나님이 불쾌하신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은 ‘바보’라는 것이다.

먼저 29절에 그들은 참으로 자신들의 종말 (끝)이 어찌될는지 모르기에 ‘바보’라는 것이다. 둘째로 30절에는 그들의 승리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패배를 하나님이 주도(?)하셨기에, 즉 이스라엘을 패배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스라엘이 진 것이지, 그들이 소위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어리석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31절이 이렇게 해석하면 난해구절이 되는데, 아무튼, 문맥상 해석을 하면,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우상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니 어리석다는 것이다.

5) 대적에 대한 심판의 근거와 확실성 : 32 - 35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된 이스라엘을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하는 이방 원수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된다. 즉 그들의 운명은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32 - 33) 그러나 그들의 심판은 흔히 기록된 불과 유황의 심판이 아닌, 그들이 만든 ‘독포도주’를 마셔서 죽는다. 그들의 ‘포도나무’ 그들의 포도, ‘그들의 술’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즉 그들의 포도는 술이 아닌 ‘독’을 만든다. (33절) 하나님은 결국 이 ‘독’을 어찌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이 독을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신다. (34절)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독을 드디어 여실 것이다. (35절)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3. 해석 & 적용

1)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사람은 ‘등따시고 배부르면 가난한 시절을 잊어버린다고 한다. 또한 격언 중에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어려울 때면,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찾고 매달리고 하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선하게 해결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범한다. 이스라엘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원인의 가장 큰 2가지 요소가 바로 ‘교만’과 ‘망각’이다. 그리고 이것을 쉽게 표현한 한자성어가 바로 ‘배은망덕’이다. 즉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린다는 뜻 아닌가? 그렇다면, 역으로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배은망덕’한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그 첫째가 바로 ‘기억’하는 것이다. 즉 과거를 돌이켜 보고 늘 기억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사람은 늘 좋은 것은 잊고, 나쁜 것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억되는 법이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인 셈이다. 그러므로, 좋은 것, 배

푸신 은혜는 의도적으로 늘 '기억'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둘째가 바로 '감사'이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면서 동시에 '감사'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가 배은망덕의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늘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오늘 우리들은 잠시 미래에 대한 생각, 시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접고서,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지난 1 - 2년의 시간으로 돌아가 보자. 어떻했는가? 아니면 자신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로 돌아가보자. 그리고 오늘 지금과 비교해 보자.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아니한가? 그렇게 '기억'하고 '감사'하면 신기하게도, 오늘 내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깨닫게'되고, 알게 되는 것이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기 원하는가? 그럼 잠시 과거로 돌아가 '기억'하고 '감사'해 보자. 그럼 오늘 이 은혜를 입은 자로써 내가 무엇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2) 하나님의 질투는 역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부모와 같은 사랑' '헌신하는 사랑'이다 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 어머니 같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한다. 즉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이다. 또한 우상을 표현할 때도, 저들은 너희에게 해 준 것이 없는 우상이지만, 나는 다르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한 '신'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이 바로 '질투'이다. 이 질투를 '불'과 '화살'로 표현했다. 그 질투가 너무나 강렬해서, 불이 온 세상을 다 태울 정도라고 말한다. 화살은 너무 강렬해서, 마지막 화살까지 쏠것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에 대한 서운함'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고통중에 낳았고, 내가 너를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네가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네가 나를 걷어차고, 잊어버리는 이 행동은 정말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서운함'이 그대로 묻어져 나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금 '깊이'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오늘 나는 정말로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 드린 것' 없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자. 그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사랑하심'에 반대로 감격해 보자. 그리고 자신의 최근의 '행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 드린 것을 없는지 살펴보고,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데이트, 동행을 위해 오늘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3) 자식에게 징계는 있지만, 저주는 없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부모와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비유한다. 그리고 이 모든 질투와 분노를 폭발하시면서도, 이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 이유는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지라도 하나님이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은 그분이 버리시지 않은 한 이스라엘이 비록 이 언약을 파기하는

범죄를 했을지라도, 그분의 의지가 이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다. 그분의 사랑과 언약에 대한 의지가 우리가 비록 범죄할 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한 여호와와 '인자'이며 영어로는 unfailing Love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

그분은 비록 오늘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를 꾸짖거나 징계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거두시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의 징계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너무 '경히' 여기지도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통한 '징계'나 '훈육'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교훈'삼으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고 성숙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요즈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살펴보고, 이러한 징계의 진정한 '교훈,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아 그것을 실천하는 영적인 민감함, 깨어있는 하루가 되자.

히 12 : 5 - 11

5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7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9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4)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VS 우리들을 착각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나, 원수들이나 모두 무지하고 착각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먼저 이방민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넘긴 것을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졌다. 반면,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해 주지도 못할 나무와 돌들에 지금까지 절하고 의지하였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들은 한낱, 돌과 나무에 불과하였음을 깨닫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무지와 어리석음을 통해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 39절에 나온 바와 같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인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2000년전에 이들만이 하는 착각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들도 조금만 잘 되면, 모든 것이 자신이 '잘나서' 된 줄 알고 금세 오만하고 교만하며 자기 자람에 쉽게 빠진다. 또한, 그것이 하나

님 덕(?)에 되었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우상들 - 사람들의 인맥이나, 자신의 능력, 또한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 -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이다. 즉,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다. 물론 기도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기도로 의탁한 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야 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 겸손한 크리스찬이라면, 먼저, 하나님이 수고한 만큼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한 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태도일 것이다 오늘 나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는가? 그렇다면 먼저 기도하라. 오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도록 의탁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나의 '뭉'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